

제 **18** 호 2017년 상반기
(2017. 1. 1. ~ 2017. 6. 30.)

의정소식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구민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6 의원 현황 및 정수
- 07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8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주요 의정활동
제 165회 임시회
제 166회 임시회
제 167회 제1차 정례회
- 17 현장속으로
- 20 결의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 27 2017년 상반기 포토 의정
- 51 의회 방청 및 견학안내



표지설명 | 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식수

발행일 | 2017년 상반기 제18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3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 발 | 간 | 사



스무살의 성년이 된 북구의회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도 20만 북구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북구의회가 개원한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97년 7월 15일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1998년 제2대, 2002년 제3대, 2006년 제4대, 2010년 제5대를 거쳐, 지난 2014년 7월 제6대 북구의회가 구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하여 어느덧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북구의회 전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구민만을 생각하는 초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민여러분께서 맡겨 주신 책무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반성도 함께 해봅니다.

스무살의 성년이 된 북구의회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주체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지난 7월 1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김성호 박사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여러 패널 들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 북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주민이 전체 구성원을 선출하는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야말로 주민자치, 즉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시민참여의 확대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북구의회도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의회 전문성 강화, 열린의회 구현 등을 통해, 앞으로도 20만 북구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존중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의 여러 현안들은 발로 열심히 뛰면서 구민들과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소통하는 북구의회를 만드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 복 금

| 의원현황 및 정수

▣ 제6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정 복 금

연락처 010-3446-2002

선거구 비례대표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성 명 강 진 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 명 윤 치 용

연락처 010-2299-7321

선거구 농소 2·3동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안 승 찬

연락처 010-6587-1287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주민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북구로 가꾸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이 상 욱

연락처 010-5535-236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여가와 문화가 풍성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이 수 선

연락처 010-2833-1929

선거구 농소 2·3동

“주민이 행복한 사람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 원

성 명 백 현 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건강하고 활기찬 북구 건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7	2	2	2	1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 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 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의회 조직





2017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회기운영 현황 (2017. 1. 1. ~ 6. 30.)						
구 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17년 상반기	3	44	2	29	1	15

안건처리 현황											
회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65회 (2017.2.9.~2.22.)	14	14	0	0	4	0	1	1	1	2	5
제166회 (2017.4.14.~4.28.)	15	15	1	0	6	1	1	0	1	1	4
제167회 (2017.6.12.~6.26.)	15	21	0	1	13	2	0	0	1	0	4
합계	44	50	1	1	23	3	2	1	3	3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65회 | 임시회 2017. 2. 9. ~ 2. 22. (14일간)

제165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2월 9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 회의장에서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전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복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1년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보고받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업설명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강진희 부의장은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등 구정 전반’에 관한 구정 질문을 하였고, 윤치용 운영위원장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여 수명 연장된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제165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했다.



의정활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66회 | 임시회 2017. 4. 14. ~ 4. 28. (15일간)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임시회가 4월 28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북구의회는 이 날 본회의를 통해 쇄부리체육센터 위탁 운영비를 포함한 총 2,945억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으며, 강진희 부의장은 ‘공동주택 어린이 집 임대료 문제와 무릉운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였다.

15일간 열린 이번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호계천 태풍피해 복구 현장 등 관내 주요 추진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67회 | 제1차 정례회

2017. 6. 12. ~ 6. 26. (15일간)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2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복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심의를 통해 진정한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당부하며, 예산집행을 통한 행정목적 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167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쇠부리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개 조례안을 심의·처리했다.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165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강진희 의원]

※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추천기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육 의원]

※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장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윤치용 의원]

※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호, '16. 9. 9.)함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윤치용 의원]

※ 국민소송 원고단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재판부 판결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운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핵발전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이상육 의원]

※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원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산된 원자력 해체연구센터의 재검토와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함.

제166회 | 임시회 주요 안전처리 현황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함.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달천철장 전기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이수선 의원]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안승찬 의원]

※ 울산 북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이어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근거를 마련하고, 그 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강동권 개발 등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복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이수선 의원]

※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회적기업 등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사회적기업 등의 워크숍 참석 및 견학 수행 경비 지원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 원안가결 [강진희 의원]

※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하고,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의회사무직원에게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함.

제167회 |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원안가결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2015. 12. 31) 및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복구 염포동과 양정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염포양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쇠부리체육센터가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강동권개발을 포함한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을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쇄부리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관련 조례에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및 사용시간·휴무일을 명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7. 5월 매곡도서관 준공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윤치용 의원]

※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범위 및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 심의보류 **[이수선 의원]**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현 | 장 | 속 | 으 | 로



북구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들은 1월 24일 오전 관내 복지시설인 연암꾸러기 지역아동센터와 어울림 연암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잡곡 및 생활용품 등을 설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설을 맞이하여 관심과 온정이 그리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현 | 장 | 속 | 으 |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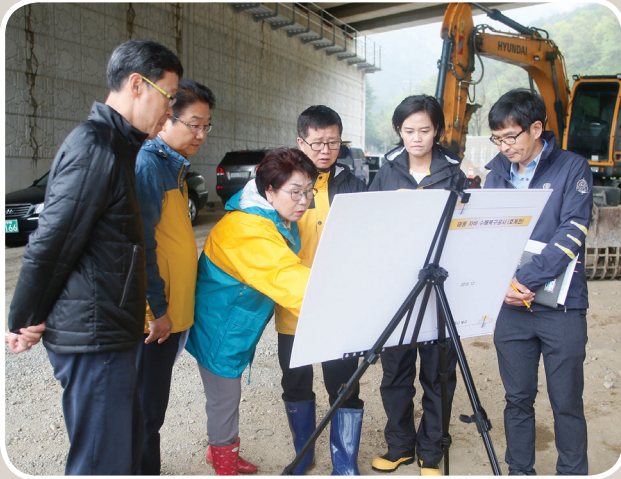
북구의회, 관내농장 묘종 이식 자원봉사활동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 일동은 2월 22일 오후 관내 농장을 방문하여, 애호박 묘종 이식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에는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복금 의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각계각층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현 | 장 | 속 | 으 | 로



북구의회, 관내 주요추진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나무심기 행사 참석

북구의회(의장 정복금)는 4월 17일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 현장 등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태풍 ‘차바’ 피해복구 현장인 호계천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66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으로, 북구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날 의원들은 사업현장을 둘러보면서 “고대 철기문화의 상징인 달천철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함과 더불어, 여러 콘텐츠를 활용하여 앞으로 북구의 상징적인 역사문화시설로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제반사항을 면밀히 살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지난해 태풍 ‘차바’ 피해로 복구공사가 한창인 호계천 일원 현장을 점검했다.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고, 항구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피해지역에 편백을 식재하여 산림복구와 도심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제72회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의·안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 의 자 : 윤치용 의원
- > 의 결 일 : 제165회 임시회 (2017. 2. 15.)
- > 결의요지 :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행정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 1호기 즉각 가동 중단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 ▶ 가. 지난 2월 7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국민소송 원고단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승소 판결이 있었음.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 나.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핵발전소가 23기나 있는 핵 밀집도 1위의 나라이며, 특히 울산과 부산 지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핵발전시설 밀집지역에다가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에는 활성단층까지 잠재하고 있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다.
- ▶ 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재판부 판결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운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핵발전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주문

최근 경주 지역의 큰 지진과 여진으로 핵 발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의문과 만일의 원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활성단층대에 지어진 핵발전소가 있는 울산지역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울산시민 80만 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듯,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상시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전사고를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월성1호기가 가동 중일 때 삼중수소 피폭량은 가동을 멈추었을 때보다 3배 이상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월성 나야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심지어 5살 아이의 소변검사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

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용하고 있는 식수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지역주민들은 30년 동안 삼중수소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수원은 오염되지 않은 상수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는 월성1호기가 너무 위험하니 당장 폐쇄하길 원합니다. 독일의 칼카르 핵발전소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5조 이상을 들여 완공한 칼카르 원전을 폐쇄조치했으며, 중국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를 지켜보면서 2011년 4월경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재검토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를 거울 삼아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 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은 지난 2월 7일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결과, 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내진설계가 허술해 위험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강진으로 월성 1, 2, 3, 4호기가 수동 정지 됐을 때, 전기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 수급량의 0.8%밖에 차지하지 않는 월성1호기, 다른 핵발전소보다 방사능 물질을 20배나 많이 방출하고 10만년 보관해야 하는 핵 쓰레기도 5배나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괴물, 월성1호기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말고 태양과 풍력을 이용한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정부에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울산 주변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핵발전소 확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재판부의 판결과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운전을 즉각 가동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핵발전소의 전면적인 안전 점검, 법적 정비, 방사능 감시와 대응체계, 핵사고 대처방법과 대피요령 등을 포함하는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울산 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 > 의 결 일 : 제166회 임시회 (2017. 4. 7.)
- > 결의요지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 제안이유

- ▶ 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음.
- ▶ 나. 또한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주민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음.
- ▶ 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 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함.
- ▶ 라. 이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하고자 함.

■ 주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만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安排,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주민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 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

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구·정·질·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 질문일시 : 제165회 임시회 (2017. 2. 9.)
- > 질문요지 :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주민이 함께하는, 활기 넘치는 염포·양정으로의 변화를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도시재생사업의 협업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사업지구 내인 염포동 신전시장에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총괄코디네이터 등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확충하고 9월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12월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참여 인식 확산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 전문가, 행정협의회, 주민 등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추진방향과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콘텐츠 보안을 위한 지역 및 인근기업 자원조사 연계방안 용역,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실시 및 상인협의체도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아카데미 교육을 상인까지 확대하여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아카데미 운영시, 주민들과 함께 대구 선진지역을 다녀온 사례와 같이, 상인들과 더불어 광주 1913송정역시장 등 우수사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지원센터에는 총괄코디네이터 1명, 부코디네이터 1명, 상근인력 1명, 청년활동과 주민활동을 위한 현장활동가 2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부코디네이터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과 주민참여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시, 디자인 뿐만 아니라 도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전시장 내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전문가, 상인 등과 함께 검토하여 신전시장과 주변지역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 단위사업별 착공과 2020년 사업완료로 목표로 추진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 **북구 관내사회복지시설 건립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여건,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2026년까지의 사회복지시설 종합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차적, 순차적 복지시설 건립 계획을 통하여 안정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권역별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별복지관 사업은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2012년부터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양정·염포권은 염포동주민센터, 명촌·효문권역은 명촌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거점화 운영중이며, 송정, 농소2·3동, 강동권역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 동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 복지관 운영이 중요해 지고 있어 2017년 당초예산에 권역별 복지관 운영비를 1천만원 증액하여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고자 공공시설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도 강동권역은 동주민센터 지하1층 프로그램실과 푸르지오 2차내 회의실 공간을 확보하여 '16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역별 복지관 사업 추진을 위해 농소2·3동 권역도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향후 건립할 제2노인복지관 규모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호계동에 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로써 일일 평균 이용자가 약 800여명으로 포화상태인 만큼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리적으로 우리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정·염포 권역에는 현재 새마을금고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올해 중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내년 초에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며,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2020년 개관을 목표로 부지매입, 국시비 확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복지관 건립 시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의 이동을 최대한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수립시 추세를 감안하여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진행하면서 인구분포도,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시기를 좀더 당겨야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인구 19만 5천여명 대비 약 4%인 7천 7백여 명이 등록 장애인이며,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타구·군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나,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분관, 제2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순으로 기간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또한 시급하므로 가능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인프라 총량제에 관한 지역사회 공론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수립된 사회복지시설 건립 종합 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기까지 예산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사회복지시설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북구예술창작소 위탁 선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북구 예술창작소는 지난 2014년 염포동주민센터가 이전됨에 따라 염포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구 염포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 레지던스 공간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현재 위탁단체가 기존 예술창작소에서 해 온 지역연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단체가 바뀐다고 해서 예술창작소의 사업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준에 지역연계사업 중에 반응이 좋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도록 우리구에서 위탁단체를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염

포양정 도시재생사업도 사업주관 부서인 도시행정과와 위탁업체가 잘 협력해 추진해 나가도록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관련부서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현재 위탁단체가 문화예술 전문인이 전무하다고 우려하시는데, 현재 위탁단체는 비영리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법인단체이며, 그동안 행정기관의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선정,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교류와 소통의 경험을 가진 단체로 예술창작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레지던스사업의 경험부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여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북구 예술창작소를 염포예술창작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예술창작소가 북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인 염포동에 위치하다 보니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명칭만으로도 쉽게 기억하고 예술창작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면서, 염포라는 지명이 조선시대 삼포개항지의 한곳으로, 울산 지역을 방어하는 군사 기지로서의 큰 역할을 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염포예술창작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 문화·예술을 꽃피우는데 있어 염포예술창작소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내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현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내 임기제 공무원은 2명으로 그 중 전산수발주가 주 업무인 임기제 공무원 “마”급이 3월 4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2011년 최초 시작하여, 2014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친환경급식은 물론, 5, 6학년 무상급식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에 맞춰 8억원의 구비 분담금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전 학년까지 친환경급식을 확대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교사들은 외관상 고르고 깨끗한 관행 농산물을 선호하였고, 품질도 고르지 못하고 수시로 결품이 발생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급식지원센터와 농가 간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중학교 10개 학교의 친환경급식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장기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이 확대된다면 이 문제는 다시금 불거질 것이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과 친환경 농가 육성에도 차질이 예상되기에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번 계약직 직원 채용에 “영양사”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급식업무 1년 이상 근무한 식품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기존 전산수발주 업무를 포함하여, 학교 현장 행정으로 영양교사들과 실무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급식 사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결의안,
구청질문,
5분자유발언

-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 질문일시 : 제166회 임시회 (2017. 4. 28.)
- > 질문요지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와 무릉운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와 무릉운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의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총 29개소로 그 중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24개소이며, 관리규약이 필요 없는 임대아파트 단지와 국공립 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 9월 8일, 울산시에서 개정한 관리규약준칙에는 어린이집의 임대료에 관한 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하는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파트 24개 단지 중에 개정된 준칙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거친 아파트는 17개소이며, 이 중 7개소는 준칙을 반영한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약은 입주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에 따른 준칙·규약의 적용시기와 규약변경 시 계약 변경여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국민임대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임대료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적으로 준칙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는 바,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는 타 분양아파트에 준하여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준칙과 달리 임대료를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한 「울산시 관리규약준칙」을 반영하여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15일,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행정안내(건축주택과-12704)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준칙을 반영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규약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2개 단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난 4월 11일 시정명령 한 바 있습니다.

▶ 준칙과 규약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인센티브 방안과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현재,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시에 울산시 관리규약준칙 제 87조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관리규약에 강제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강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법부(서울지방법원)에서는, 각 광역시도의 관리규약준칙은 강행법규가 아닌 참조 규정일 뿐, 공동주택관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준칙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한 대로 각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 아파트 현장에서는 분쟁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타 광역단체(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2017. 3. 31)한 바 있는데, 법제처의 최종해석이 국토교통부 해석과 같이 강행적으로 관리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울산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각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시정명령 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하는 경우 행정(시정)명령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감점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에 있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울산시 관리규약준칙을 잘 반영·개정하고 관리규약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서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릉운동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우리 구는 2009년 10월, 9억원의 예산으로 구 무릉분교에 현재의 무릉운동장을 준공하고 3년마다 교육청과 계약을 갱신하여 강동지역 유일의 생활체육시설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13,000여명의 지역주민과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개원예정인 강동유치원 설립을 위해 5월부터는 무릉운동장 임대계약을 해지한다고 우리 구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무릉운동장 지속사용을 위해 대부계약 연장 및 강동유치원 설립부지 변경을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정식 요청함과 동시에 교육청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에는 강동지역 주민 1,960명이 서명한 무릉운동장 지속사용 및 강동유치원 설립부지 변경 요청 청원서를 교육청에 주민들이 직접 제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동유치원 대체부지인 구 강동중학교와 동해분교는 향후 학생해양수련원 건립부지로서 유치원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현재 구 무릉분교를 대상으로 강동유치원 설립 실시설계 용역이 5월초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육동호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 무릉운동장 지속 사용 및 강동유치원 설립부지 변경을 교육청에 계속적으로 건 의해 나가면서 구. 강동중학교나 강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억의 학교 운영과 당사해양관광개발을 위해 임대하고 있는 동해분교의 매입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추억의 학교 설치를 위한 동해분교의 대부계약과 관련한 교육청 의 입장은 폐교재산 활용방안 수립을 감안하여 1년간 계약연장 허가를 제시하였으며, 2009년 9월 21일부터 대부계약을 체결 하고 현재까지 매년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8월,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한정된 공간과 새로 운 콘텐츠 부재로 동해분교 건물 및 부지 전체를 임대하여 울산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청소년 시설」, 「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 교육청에 요구하였 으나, 기존 대부 받는 자(세계파충류체험 박물관 및 창고 개인 대부자) 모두 대부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학교 시설 전체 대 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0일, 시 교육청에서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동해 분교를 가칭 「울산학생해양수련원」 분원으로 2020년 개원을 목 표로 추진 중에 있어, 2019년까지는 동해분교를 대부할 계획이 나 그 이후에는 동 수련원 설립 추진과정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검 토예정에 있음을 통보해 왔기에 동해분교 매입 추진은 사실상 어 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 대부 만료 이후에는 전시설 품 등을 유관기관을 통해 재 기증하거나 관내 대체시설을 활용하 여 이전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추억의 학교 운영방안을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까지 추억의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
- > 질문일시 : 제167회 제1차 정례회 (2017. 6. 12.)
- > 질문요지 : 지방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 하여

▶ **현재 운영 중인 체육센터, 운동장, 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등 관리 에 필요한 공무원 수와 예산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체육센터와 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오토 벨리체육센터 관리 6명, 국민체육센터 관리 5명, 운동장 및 다목 적구장 관리 2명과 그 외 기간제 근로자 28명 등 총 41명이며, 중 산문화센터 등 3개소에는 공무원 5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공익 근무요원 4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 하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상방복개천 등 유료주차장 6개소, 무료주 차장 64개소 등 총 70개소로 주차장 담당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 로자 1명 등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 6개소는 대한 노인회 북구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017년 체육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오토벨리복지센 터 18억 1,957만 5천원, 국민체육센터 15억 8,627만 1천원, 운 동장 및 다목적구장 4억 972만 1천원 등 총 38억 1,556만 7천원 이며,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은 중산문화센터 9,341만 3천원, 천곡문화센터 7,531만 4천원, 명촌문화센터 1억 678만 7천원 등 총 2억 7,551만 4천원이고, 공영주차장 연간 운영 예산은 시설물 정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6,995만 5천원입니다.

▶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과 설립 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답 변 바랍니다.**

우리 구는 1997년 자치구 출범 이후, 비약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및 주차장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목구 역시, 다양해짐에 따라 종합적 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을 통한 경영

행정을 도입하여 효율성 극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 다. 지난 2013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2014 년 3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4년 7월 주민 설명회를 거쳐 2014년 11월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에 서 사업수지 비율이 50% 이상으로 설립요건은 충족되나, 공단위 탁 시에도, 매년 적자가 증가하여 공단설립에 따른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 보류의결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운 영 기준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경우, 재 용역을 금지하고 있어 2017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지 못 하였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길게 늘어진 지형으로 주 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의 수요가 많아 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지속 적으로 인구와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대비한 효율적인 방 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를 하고 있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에 설 립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관리공단 용역 사전준 비작업 등 행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최대한 빨리 시설관리공단 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빠른 시일 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양질의 대민서비스와 책임있는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기술을 확보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특히,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공공사무의 위탁 중에 발생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 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하고 미 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쾌적 한 생활환경을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65회 임시회
(2017. 2. 9.)

발언 요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여 수명 연장된
월성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라!**

그동안 끊임없이 원전(핵발전소) 위험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7일 내려져 정부의 원전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명 연장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만, 핵심은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으로 밝혀졌다는 데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핵발전 시설 밀집지역이며 인구 밀집 정도를 감안해 보더라도 최대 인구 밀집지역에 최대의 핵발전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또 후손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물려준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규정과 절차마저 무시하고 졸속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던 울산 동구 앞바다의 지진으로 불거진 지진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작년 9

월 12일에 일어났던 경주지역의 5.8의 강진으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무수한 활성단층이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만큼은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진불안과 핵발전 시설의 재앙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위협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재차 요청합니다. 원안위는 재판부 판결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운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일어났던 강진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 한다면 핵발전 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핵발전소 건설 중단 입법화는 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정치권과 차기 대선주자들도 신규 핵발전소 계획 폐지 및 기존 원전시설의 단계적 폐기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주지진이 발생하고 관련 정밀지질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대 핵발전 단지인 신규 건설은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65회 임시회
(2017. 2. 17.)

발언 요지

**현대중공업과 김기현 울산시장은 현대중공업
의 구조조정과 탈 울산으로 울산경제를 파탄
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울산의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경제 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분사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타 지역 이전 소식은 울산시민들에게 일자리와 생존에 대한 더한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간”을 다루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그린에너지, 서비스사업 등 6개 법인의 분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분할되는 회사의 본사가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과 현대건설기계는 서울로, 현대로보틱스는 대구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부산으로 총 4,400명이 분할을 통한 탈 울산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에 이어 많은 노동자가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울산을 떠나는 사태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분사와 탈 울산은 울산 동구 뿐 아니라 울산 지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 것

이 분명합니다. 또한 원·하청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조성한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화산업단지”는 현대중공업의 탈 울산을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협의하여 공사비와 보상비 등 1,025억원을 투입하고 부담금 역시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울산경제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를 죽이고 재벌을 위한 구조조정, 분할 계획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은 현대중공업 분할 중단에 책임 있게 나서 120만 울산시민의 삶을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66회 임시회
(2017. 4. 28.)

발언 요지

**북구청장과 북구의회는 북구 발전과 주민행복
을 위한 동반자로, 서로의 신로를 바탕으로 한
소통·공감·협력의 구정을 실현하기를 바랍**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공동으로 할 일과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북구청은 주민의 형세로 북구지역 발전과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구정 살림을 잘 해 나가는 것이고, 북구의회는 북구청이 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운영될 때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주민”입니다. 주민을 우선 생각하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행복한 사업을 해간다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운영비 7억원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면서 ‘참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의회를 앞두고 건안을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묻거나 소통을 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쇠부리체육센터에 대한 시설 운영은 의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초기부터 건물의 하자 보수 문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여러 문제의 보완 등을 초기에 잘 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여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쇠부리체육센터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이 편

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행정편의적인 사업 및 구상, 현실적 문제를 되풀이하면서 아무런 계획과 생각 없이 쇠부리체육센터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의회가 올린 수정안인 “외청시설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비 1억원과 쇠부리체육센터 운영비 6억원”에 대하여 박천동 구청장님이 동의해 주시고 의회는 의결하기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외청시설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용역은 쇠부리 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우리 구의 외청시설을 주민중심,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운영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며,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하는 기간에 구청에서 직역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 엄정하고 정밀한 점검을 통해 하자보수 보완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북구청이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개관하여, 여러 운영방안을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방향을 찾고자 하는 저희들의 진심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동의함으로써 향후 방향을 함께 찾고 소통하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2017 구정발전기원 간담회 (2017. 1. 5)



북구의회 의원 및 직원 제주도 합동연수 (2017. 1. 17)



원자력로당 신축 준공식 (2017. 1. 20)



월성원전 삼중수소 인체 영향 관련 설명회 (2017. 2. 9)



강동산하변전소 설치 관련 설명회 (2017. 2. 9)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학교 수료식 (2017. 2. 15)



북구문화원 제13차 정기총회 (2017. 2. 21)



매호박 모종심기 자원봉사 활동 (2017. 2. 22)



2월 의원 간담회 (2017. 2. 22)



울산 시민 안전 체험센터 기공식 (2017. 2. 23)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2017. 3. 2)



제주대학 제10기 입학식 (2017. 3. 7)



새봄맛이 일제 대청소의 날 (2017. 3. 23)



제72회 나무심기 행사 (2017. 3. 24)



2017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 프로그램 개강식 (2017. 3. 24)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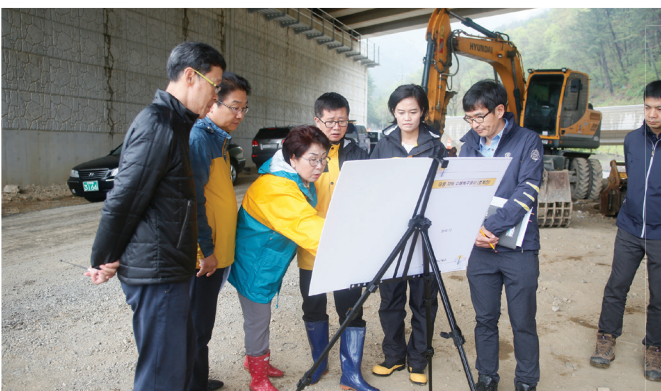
소금 나는 갯가전 (2017. 4. 4)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 위령제 (2017. 4. 5)



동해안로 확장공사 준공식 (2017. 4. 12)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 방문 (2017. 4. 17)



4·19 민주열사 정임석 추모제 (2017. 4. 19)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북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2017. 4. 22)



기생사상성 의병 추모제 (2017. 4. 23)



2027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17. 4. 24)



북구 어린이 큰잔치 (2017. 5. 5)



봄꽃뜨레 이야기 개관식 (2017. 5. 11)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어버이날 기념 효사랑 카네이션 축제 (2017. 5. 12)



제3회 울산외부리축제 (2017. 5. 12)



구청장배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2017. 5. 13)



북구청장기 동대향 배구대회 (2017. 5. 14)



송화솔 식수 기념식 (2017. 5. 16)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매곡도서관 자원봉사자 발대식 (2017. 5. 19)



북구수훈자회 북구지회 회원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2017. 5. 19)



2017 북구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2017. 5. 26)



2017 상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2017. 5. 26)



강동해변 몽돌 마라톤대회 (2017. 5. 28)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2017. 5. 28)



2017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 (2017. 5. 30)



북구 노인건강 체육대회 (2017. 6. 2)



제6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2017. 6. 3)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제16회 송화 축제 (2017. 6. 11)



6월 의원 간담회 (2017. 6. 22)



북정자경로당 리모델링 준공식 (2017. 6. 23)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 정복금 의장



울산광역시 사회보장협의회 일원단 북구의회 방문 (2017. 1. 16)



애호박 민들레심기 자원봉사 활동 (2017. 2. 22)



2017 찾아가는 경로당 맛줍 프로그램 개강식 (2017. 3. 24)



북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2017. 4. 22)



기병축산성 의병 추모제 (2017. 4. 23)



“아이들이 행복한
최선을



봄꽃뜨레 이야기 개관식 (2017. 5. 11)



제3회 울산외부리축제 고유제 (2017. 5. 12)

북구를 위해
다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 효사랑 카네이션 축제 (2017. 5. 12)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 걷기대회 (2017. 5. 14)



클린환경 나눔장터 (2017. 6. 3)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 강진희 부의장



울산 북구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 (2017. 1. 20)



원지경로당 신축 준공식 (2017. 1. 20)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제20차 정기총회 (2017. 3. 17)

“엄마의 마음으로
북구를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 위령제 (2017. 4. 5)



북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2017. 4. 22)



어버이살 기념 호사랑 카네이션 축제 (2017. 5. 12)



제3회 울산신부리축제 (2017. 5. 14)

안전한
만들겠습니다.”



제6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2017. 6. 3)



제6회 송화 축제 (2017. 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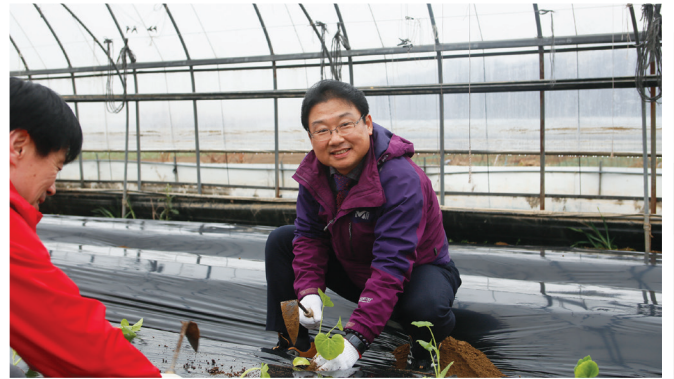
북정자경로당 리모델링 준공식 (2017. 6. 23)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 윤치용 운영위원장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2017. 1. 24)



애호박 모종심기 자원봉사 활동 (2017. 2. 22)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2017. 3. 23)

“땀 흘려 일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농소3동 한글교실 어르신 초청행사 (2017. 4. 12)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 방문 (2017. 4. 17)



신부리축제 제13회 울산신부리 고대원형로 복원실험 (2017. 5. 13)



제13회 울산신부리축제 (2017. 5. 14)

사람들이 존중받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아파트 대표자 간담회 (2017. 5. 18)



2017 북구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2017. 5. 26)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2017. 5. 28)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 안승찬 의원



북구의회 의원 및 직원 제주도 합동연수 (2017. 1. 17)



울산시민안전체험센터 기공식 (2017. 2. 23)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제20차 정기총회 (2017. 3. 17)



2017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 프로그램 개강식 (2017. 3. 24)



소금 나는 갯가전 (2017. 4. 4)

“주민과 함께
숨쉬는 북구로



기북산성 의병 축제 (2017. 4. 23)



봄꽃뜰에 이야기 개관식 (2017. 5. 11)

자연이 살아
가꾸겠습니다.”



송화술 식수 기념식 (2017. 5. 16)



강동해변 몽돌 마라톤대회 (2017. 5. 28)



제16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2017. 6. 3)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 이상욱 의원



2월 의원 간담회 (2017. 2. 22)



애호박 모종심기 자원봉사 활동 (2017. 2. 22)



울산시민안전체험센터 기공식 (2017. 2. 23)

“여가와 문화가
북구를



제72회 나무심기 행사 (2017. 3. 24)



기병축산성 의병 추모제 (2017. 4. 23)



봄꽃뜨레 이야기 개관식 (2017. 5. 11)



제13회 울산신부리축제 (2017. 5. 14)

풍성한
만들겠습니다.”



송화술 식수 기념식 (2017. 5. 16)



2017 상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2017. 5. 26)



제16회 송화 축제 (2017. 6. 11)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 이수선 의원



애호박 모종심기 자원봉사 활동 (2017.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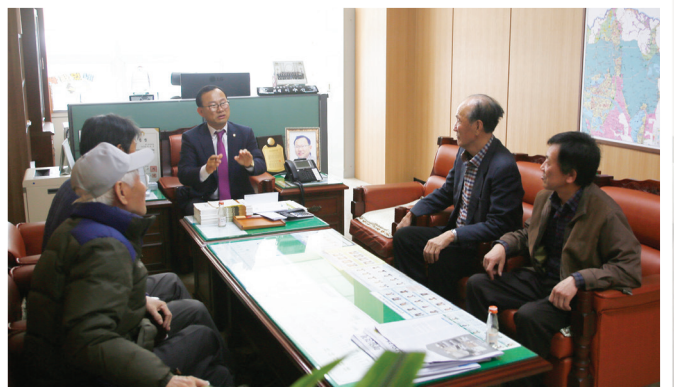
농소동 주민 민원상담 (2017. 3. 17)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2017. 3. 23)



제72회 나무심기 행사 (2017. 3. 24)



북구 주민 노인복지 관련 민원상담 (2017. 4. 4)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소금 나는 갯가전 (2017. 4. 4)



제13회 울산외부리축제 (2017. 5. 14)



북구 노인건강 체육대회 (2017. 6. 2)



제16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2017. 6. 3)



북정자경로당 리모델링 준공식 (2017. 6. 23)

사람이 살기좋은
만들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포토의정 | 백현조 의원



북구의회 의원 및 직원 제주도 합동연수 (2017. 1. 17)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학교 수료식 (2017. 2. 15)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 (2017. 3. 23)



제72회 나무심기 행사 (2017. 3. 24)



소금 나는 갯가전 (2017. 4. 4)

“건강하고 활기찬
열심히



봄꽃축제 이야기 개관식 (2017. 5. 11)



구청장기 동대항 배구대회 (2017. 5. 14)



제3회 울산외부리축제 (2017. 5. 14)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 걷기대회 (2017. 5. 14)



효문동 한마음 체육대회 (2017. 5. 28)

북구건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내용

10:00 ~ 17:00 (토, 공휴일 제외)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전문위원실(5층)에서 접수
전화: 241-8982 팩스: 241-8989

비례대표	효문·양정·염포동	농소2·농소3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사무실 : 241-8900 010-3446-2002	부의장실 : 241-8910 010-8610-4748	사무실 : 241-8930 010-2299-7321	사무실 : 241-8920 010-6587-1287	사무실 : 241-8960 010-5535-2362	의장실 : 241-8950 010-2833-1929	사무실 : 241-8940 010-3801-8364

※ 의회 방문 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화052) 241-8971~8975

FAX052) 241-8979

주소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시대를 열어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